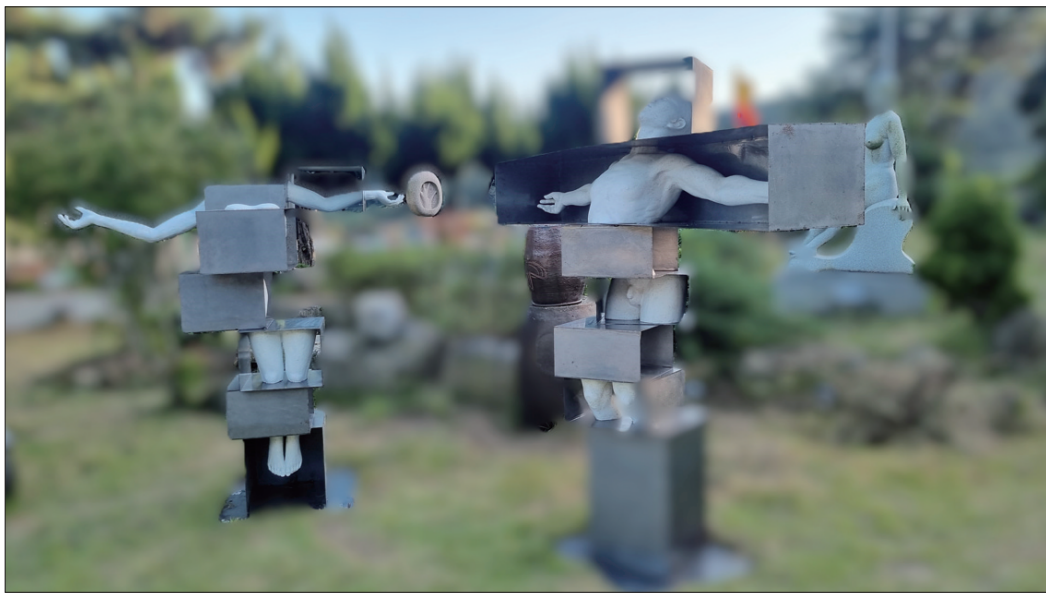




대상 수상 박정흠씨 작 '윙플라우'



최우수상 수상 김영민 작 '다층의 나'

대상에 박정흠씨 작품 '윙플라우' 선정

‘제2회 양두환조각상공모전’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에 김영민 등…시상식 29일 진도

‘제2회 양두환조각상공모전’ 결과 수상작이 가려졌다.

13일 전남 진도 여귀산미술관 (관장 이지엽 경기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진도 출생 조각가 양두환을 기리기 위해 2023년 제정된 ‘양두환조각상공모전’이 올해 두번째 공모대회를 진행.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6월부터 9월 22일까지 웹하드를 통해 작품 공모를 진행했으며, 공모전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위원장 최규철)를 꾸리고 1차 예심을 거친데 이어 지난 1일 초대작가전 개막에 맞춰 수상작품을 결정했다.

이날 심사를 통해 최종 본심에 오른 작품은 5점이었다. 최규철(심사위원장), 박주부(조각), 권지웅(조각) 위원 등 심사위원단은 입상작을 가리기 위해 시에그린 문학의 집에서 1박2일간 머물며 본심 심물 심사에 임했다. 당일 오전 개막식을 치르고, 오후 속고 끝에 대상 등 수상작을 가렸다. 최종 심사 결과 대상에는 박정흠씨의 ‘윙플라우’가 뽑혔으며, 최우수상에는 김영민씨의 ‘다층의 나’가 선정됐다. 또 우수상에는 박영나씨의 ‘천국의 계단’과 김형태씨의 ‘담대로’, 고서영씨의 ‘피어난다. 나



대상 수상자 박정흠씨

는, 신으로, 비로소, 나로서’ 등 세 작품이 공동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대상작 ‘윙플라우’에 대해 “굵고 강렬한 신의 이미지와 음악적인 소리의 섬세함을 울림을 통해 새롭게 재구성한 수작”이라고 평했다.

대상에는 1000만원의 상금과 부상이, 최우수상에는 300만원, 우수상에는 100만원 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에는 제1회에 이어 조각작품 반출입의 한계를 넘어 원거리 출품작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최측은 공모전을 지속할 경우 땅끝 바닷가 마을이 진도의 명품 예술테마 조각공원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시상식은 29일 오후 3시 진도 시에그린한국시화 박물관에서 한국의 원로 예술인 100인 아카이브전과 함께 치러진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실내외로 나뉘어 야외

조각공원에 5점, 양두환미술관(시에그린 본관 1층)에 4점이 선보이고 있으며, 여귀산미술관에서 초대작 15점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양두환 조각가는 전남 진도 출생으로 1971년 ‘풍요’, 1972년 ‘상황72’로 대상 없는 국무총리상을 연거푸 수상한 천재조각가로, 이른 나이에 조선대학교 교수로 임용됐으나 33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한편 지난 1일 개막한 초대작가전에는 권지웅 작가의 ‘봄이 오면’, 양형규 작가의 ‘길’, 진도 출신 박달묵 작가의 ‘꽃게 눈에 비친 보름달’, 안경진 작가의 ‘PIETA’, 신다혜 작가의 ‘노을빛 위를 달리며’, 오수연 작가의 ‘skyline’, 오순복 작가의 ‘상념’, 김석만 작가의 ‘사랑’, 전호갑 작가의 ‘위험한 곳’, 이종희 작가의 ‘팔방 위에 달동네’, 안경진 작가의 ‘피에타’ 등이 출품됐다.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과 여귀산 미술관에서 열린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다시 만나는 오월 마당극

놀이패 신명, 15~16일 5·18기념문화센터

5·18광주민중항쟁을 주제로 한 놀이패 신명의 스테디 마당극 ‘언젠가 봄날에’이 무대에 오른다.

‘언젠가 봄날에’는 지난 2010년 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을 기념해 초연된 이후 500여 회 지역과 전국을 순회했다. 1980년 5월 당시 행방불명자와 남겨진 가족의 이야기로, 국가폭력의 상처와 인간의 존엄, 잊혀져 가는 기억을예술적으로 승화하는 마당극이다.

극은 늙은 무당 박조금씨 굿판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은행나무를 찾으면서 시작된다. 그 앞에 암매장당한 채 이승을 헤매는 시민군과 여고생, 백구두의 영혼이 나타나고, 저승사자는 세상 사람들이 5·18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있다며 이들에게 저승길을 종용한다. 우여곡절 끝에 변화한 세상을 목격한 영혼들이 마침내 마지막 항쟁지인 전남도청 앞에 도착해 가족과 재회하는 장면이 일품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내용과 형식 전반에 걸쳐 완성도를 높였다.

초연 당시에는 진상 규명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현 시대 정서를 반영, 5·18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외곡과 편협, 느닷없는 12·3 비상 계엄 등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들을 다룬다. 또 의상과 무대 세트를 보강하고, 실연자 확대와 라이브 연주를 더했다.

놀이패 신명 관계자는 “‘언젠가 봄날에’는 1980년 오월 당시 행방불명자와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지와 항쟁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속에서 다시금 80년 광주의 이야기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연이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공연은 오는 15~16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하루 두 차례씩 열린다.

입장료는 2만원이며, 사전예매 시 8000원이다. 문의 062-527-7295.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무너진 가족에 연극으로 재탄생

‘꼭두아비’ 16일 영광예술의전당

연극 ‘꼭두아비’가 오는 16일 오후 3시와 7시 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희망문화컴퍼니가 첫선을 보이는 이번 연극은 돈을 향한 욕망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 가치 사이 한 가족이 겪는 갈등과 화해를 담는다.

평생을 돈벌이에만 매진해온 아버지가 그간 모은 전재산을 고향에 있는 학교에 기부하기로 하면서 3남매와 갈등을 빚으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드라마 ‘용의 눈물’, ‘정도전’을 비롯해 2022년 칸독립영화제에서 ‘그대여이거리’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선동혁 배우가 연기 인생 50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번 무대의 연출과 주연을 동시에 맡는다.

어머니역에는 이효주·전은주 배우가 더블캐스팅됐다. 이외에도 도재철, 김예하, 이가은, 안순동, 유양하 배우 등이 출연해 다양한 인물로 분한다.

임준형 희망문화컴퍼니 대표는 “연극 ‘꼭두아비’는 우리 아버지들의 애환을 호남의 전통화법인 ‘넛두리’로 풀어낸 시트콤 형식의 코미디극이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감동 속에서 각박한 시대를 살아낸 아버지의 진심과 가족간의 소통이 절절하게 그려진다”며 “막이 내릴때쯤, 관객들은 어느새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와 따뜻함을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료 1만원 (영광군민 3000원·학생 1000원), 문의 061-350-5400.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홍자매 신작 ‘그랜드 갤럭시 호텔’

넷플릭스 제작…이도현·이수혁 출연

홍자매(홍정은·홍미란 작가) 신작으로 주목받은 ‘그랜드 갤럭시 호텔’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된다.

넷플릭스는 13일 ‘그랜드 갤럭시 호텔’ 제작을 확정하고 이도현, 신시아, 이수혁, 이수현을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폐결핵환’, ‘최고의 사랑’ 등 인기 드라마를 쓴 홍자매가 극본을 맡았고, ‘스타트업’, ‘멜로루비’의 오창환 PD가 연출한다.

이 시리즈는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호텔의 새 사장인 은하(이도현 분)와 호텔 직원 중 유일한 인간인 상순(신시아)이 얽히는 이야기를 담았다. 여기에 악귀를 청소하는 사신 백기(이수혁), 미스터리한 여인 석산(이수현)이 등장해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인다.

홍자매와 오 PD가 앞서 호흡을 맞춘 ‘호텔 델루나’와도 유사한 설정이다.

‘그랜드 갤럭시 호텔’의 공개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DECK ROAD

예건 친환경 데크로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YEKUN, 주식회사 예건

I·B·O·M Prunus w3aLO

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T.031-943-6114 F.031-943-6698 E.yekun@yekun.com

디자인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8-12 2F T.02-324-1140 F.02-324-3270 E.yekun@yekun.com

www.yekun.com